

司書의 姿勢確立에 관한 小考

金 萬 碩

弘益大學校圖書館 司書

1. 序

圖書館은 오늘 날 教育的으로 必須要件의 機關으로서 이전 無視할 수 없는 機關임을 自他가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론 바 初等教育 機關에서 부터 高等教育 社會教育에 이르기까지 圖書館은 없어서는 안될 存在가 되고 있음은 우리가 잘 아는 事實이다. 그러나 이러한 圖書館이 그저 藏書와 建物施設만 갖추었다고 제 구실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勿論 財政과 人事 問題가 必然的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圖書館 뿐만 아니라 一定한 組織을 가진 1個 機關을 運營함에 있어서는 그種類如何를 不問하고, 經營者 또는 行政家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곧 機關士가 있어야 機關車가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은 人間의 두뇌와 손에 依해서 움직여 지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러나 여기에 問題되는 것은 機關士의 姿勢이다. 이론 바 乘客을 安全하게 輸送해야 한다는 義務와 精神으로 그리고 自身의 職業에 對한 殉持를 가지고 보람과 希望을 안는 마음 가짐이다. 圖書館엔 司書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 司書는 利用者를 為해서 무엇을 어떻게 奉仕하며 어여한 마음 가짐으로 職務를 수행하고 殉持와 보람을 가지며 임할 것인가 하는 精神 姿勢의 確立를前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施設이 어떻고 鄉酬가 어떻고 等等 不滿을 갖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自身의 부끄러움 없는 姿勢가 確立된다면 다른 不滿은 점차 하나 둘씩 단계적으로 解決될 것이며, 안될 때엔 괴롭히 打開해 나갈 수 있는 일이며 開拓하는 活力도 솟아 오를 것이다.

오늘 날 圖書館만큼 成長 폐단이 느린 곳도 없으리라 생각된다. 도서관의 긴 역사에 비해서 발전은 둔했음은 分明하다. 或者는 도서관들이 많은 발전을 했다고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歷史에 훔쓸려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 뚜렷하고도 눈부시게 刮目할 만한 發展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勿論 韓國의 特殊한 歷史的 背景의 영향때문이기도 하겠으나, 古今에 이르도록 國家의 큰 뒷받침이 없었고, 凡國民의 인

認識도 不足했으며 심지어 一線의 圖書館人們自身에 이르기 까지 뚜렷한 革新이 없었던 것은 많은 弱點이 있었음에 어쩔수 없었던지도 모른다. 또한 폐동을 수 없는 理由의 하나로는 民衆들과 密接하지 못하다는 것인데, 利用者와의 親密度가 얕음으로써 아직도 그들의 圖書館에 對한 認識不足은 如前하다고 본다. 그러면 圖書館의 劇期의 發展을 為해서는 무엇이 急先務인가를 熟考해 보아야 하겠다. 우리의 圖書館 發展 問題는 圖書館이라면 모두가 責任을 지어야 한다. 圖書館은 圖書館 스스로가 그 發展策을 講究해야 할 것이다. 보다 能動的으로 보다 積極的으로 全 圖書館人은 圖書館의 發展을 為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며 더 깊이 더 앞서서 할일이 무엇인가도 깨닫지 않으면 안되겠다. 우선 그 基本的이고 가장 根源的인 問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곧 司書들의 姿勢確立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圖書館界에 進出해 있는 司書들은 아직까지도 뚜렷한 주체의식이 서 있지 못한 것 같으며 그저 無事安逸主義式으로 훌륭에 훔쓸려 갈뿐, 未來를 為한 어떤 確固한目標가 不在하고 있는 것 같다. 이같은 現實속에서 벗어나 司書들은 보다 傳統的이고 歷史的인 主體가 서 있는 韓國의 圖書館人の 姿勢를 갖추어야 될 것이며 또한 이를 為해 努力해야 될 것이다. 곧 真正한 社會奉仕者로서의 素養을 기르고 重要한 使命感을 깊이 認識해서 圖書館界的 革新的인 氣運을 일으켜야 될 것으로 본다.

2. 司書의 姿勢와 確立

모든 圖書館人은 圖書館의 發展에 責任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序論에서 밝힌 바 있다. 한번쯤은反省해 보아야 할 것이다. 可能하면 1年에 한번씩이라도過去를反省하며 未來를 設計하고 開拓해 나가는 姿勢를 모두가 갖춘다면 아마도 圖書館의 發展은 훨씬 加速度로 急成長할 것이다. 왜냐하면 圖書館의 發展에 對한 遲延의 責任은 우선 첫째로 圖書館人の 自身들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圖書館이 恒時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한탄하기에 앞으로 全 圖書館人은 無

條件 한번만이라도反省해 보는 姿勢를 가져 볼 일이 다. 主體對象이 무엇이든 相關할 것 없이 發展의 여부는 먼저 人力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은 사람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하는 일이며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이상 구태여 도서관 발전만 느리고 침체되어야만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未來는 언제나 밝다는 것을 우선 믿어야 할 것이다.

司書가 전문적이다 아니다 월가 월부하기 이전에, 司書를 教授職대우로 해야 된다 안된다 하기 이전에 도서관도 국가적 뒷받침이 약하다는 등등 甲論乙駁의 혼란된 論難을 거듭하면서 다람쥐 채바퀴 돌듯 계속 할 것이 아니라 圖書館은 學問의 체계를 確立해야 될 것이다. 또한 이 學問을 志願하려는 지망생과 그리고 연구과정에 있는豫備司書들의 자세나 이미 배출된 司書들의 자세 등 모두가 진정한 개개인 人生觀確立을 바탕으로 하여 이른 바 사서 哲學이 서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학은 圖書館學으로서의 獨立된 學問으로서 뚜렷한 學問哲學이어야 될 것이며 이를 研究하고 學問하는 전공 학생들에게도 이를 우선적으로 理解시켜야 될 것이다. 소위 奉仕를 철칙으로 하는 의사, 간호원, 민중의 지팡이라 칭하는 경찰 등의 예처럼 도서관인 역시 奉仕精神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할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겠다. 資格證을 벼개삼아 가만히 눈감고 들어 누워 있을 것이 아니라 빛이 發散하고 진정價置 있는 資格證이 될 수 있도록 司書들自身이 진력해야 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 圖書館界에서도 舊式의 無秩序하고 해묵은 形式에 얹매여 끌려만다닐 것이 아니라 참신한 圖書館人인이 힘을 하나로 몽쳐서 韓國圖書館의 일대 혁신의 旋風을 불러 일으켜야 될 것이다.

圖書館의 哲學은 곧 司書哲學이다. 司書哲學은 特定하게 어떤 것으로 해야 된다고 规定짓기엔 筆者로서는 감히 내세우기 두렵다. 다만 司書哲學의 必要性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적어도 司書가 專門職이라면 어떤 뚜렷한 哲學의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 할 것이며 學問의으로도 定立시켜야 될 것이다.

그러기 為해서는 司書를 個個人이 그들의 人生觀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다 司書들로서의 哲學을 심어야 할 것이다. 元來 圖書館은 圖書와 密接한 것이다. 密接한 程度가 아니라 一心同體인 것이다. 송충이가 솔잎을 떠날 수 없듯이 司書 또한 圖書館을 떠날 수 없겠다. 책이란 人間의 두뇌를 쉬지 않고 回轉시켜 춤으로써 무언가 하나라도 머리속에 남겨 주며 또한 知識의 實庫이다. 이러한 책들이지만 언제나 우리들 人間생활 주변에 存在해 주지 만도 않는다. 즉 直接 所有할

수 있거나 구할 수 있거나 또 그 知識들이 휩싸리 손쉽게 엮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知識을 구하는 利用者와 圖書와 各種 문헌情報나 資料 등의 떨어져 있는 사이에서 架橋역할을 하는 이론 바 案內者가 곧 司書라 할 수 있겠다. 人間은 배움에 끝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배운다는 것도 무언가 알아야 배울 것이며 또 반면에 알려면 배워야 되는 것처럼 이 과정은 혈액순환처럼 끊임없이 가고 오고, 가고 오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예컨대 부모 형제, 스승과 제자, 선배 후배, 선진국 후진국 등과 같이 人間과 人間, 社會와 社會, 國家와 國家間의相互關係 등 모두가 聯關係 끼나풀 속에서 갖가지 知識과 情報 등을 얻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것이다. 곧 어떤 한 사람이라도 自意든 他意든 意識의 이든 無意識의 이든 모두가 이런 순환속에서 사는 것이며 이 과정 속에서의 지식 전달 方法과 手段은 다양한 것이다. 그 代表적인 것이 組織된 1個 機關으로서의 圖書館일 것이며 좁은 意味에서는 圖書資料와 利用者 사이에 司書가 存在하는 것이다. 따라서 司書가重要な 案내役을 맡고 있다는事實을 알아야 한다. 이들은 배우고자 하는, 알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물론 잠재된 자들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안내해야 될 主要한 使命感을 띠고 있는 것이다. 故로 안내역을 제대로 해내기 為해서는 誠實한 忍耐와 투철한 奉仕精神 등을 갖출 것을前提로 한다. 이러한 素養을 지닌 司書들은 그들대로의 진정한 哲學觀을 定立시켜야 한다. 어설프게 무슨 哲學이나 하든지, 또나 하나쯤 程度로 언제까지나 미온적으로 처신해 나간다면 司書의 無能은勿論 圖書館의 대대적인 發展은 어렵게 될 것이다. 예컨대 저수지의 뚫을 쌓을 때 둘의 種類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그 수요는 각각의 나름대로 所用되며 필요한 價置가 存在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중 어떤 하나를 하잘것 없는 작은 돌멩이라고 輕視하게 된다면 그 돌멩이 만한 구멍이 생김으로써 둑은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처럼 도서관인 모두는 어느 원대한目標를 향해서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司書 한 사람 한 사람에서부터 全體的으로 궁지와信念으로 철저한 奉仕精神을 가지고 不足함이 없는 업무 수행에 한층 더努力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哲學이 선 연후에 이를 바탕으로 圖書館人은 그들대로의 集團 또는 機關 등의目標를 設定해서 그 座標를 向해 매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歷史 文明의 계승과 文化전달의 보이지 않는 안내자라는 철학관이 선 모든 司書는 恒時 평범한 案내者가 되는데 유의해야 될 것이며 정신적 자세의 확립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行動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다음엔 철학관에 연관시켜서 도서관인이 갖추어야 될 자세는

奉仕정신이다. 대개의 職業이 그러하지만 圖書館人은 특히 성실과 인내로서 끈기있게 적응해 나가는 투철한 봉사정신을 빼놓으면 제 구실을 다 할 수 없게 된다. 봉사를 첫째로 하면서도 의료비가 없으면 환자를 외면하는 의사의 경우와 다를 바 없는 職業人이기 때문에 각己 진실된 個個人의 人間性을 회복시켜서 참다운 奉仕者로서 圖書館人을 널리 認識시켜야 할 것이다.

거의 모든 職業이 奉仕와 친절을 입버릇처럼 되뇌이면서도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精神的 자세의 확립이 안되어 있는 탓이며 또한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직에 從事하는 자들은 속에 든 것이 없으면서도 다만 전문직이라는 우월감에 사로 잡혀 고질적인 자만심만 들어 앉아 진정 봉사라는 거리를 멀리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다. 圖書館人(司書)도 전문직이라고 하면 예외일 수가 없는 것 같다. 司書의 자세가 바람직하게 서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로는 거의 모든 사서가 1個 기관이나 고용인의 회하에서 피고용인으로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이 거의 모든 예로서 이래도 저래도 월급이 나오는 것을 봉사는 무슨 봉사정신이냐 하는 식으로 적당주의로 나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나 협신적으로 업무에 충실했고 열심히 奉仕하느냐에 따른 그에 相應하는 보수부터 생각함으로써 그것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애써 奉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하는 思考方式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짙은 것 같다. 그런가 하면 열심히 봉사하면 사람들일지라도 혹간에는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등으로 紙付관계를 판별시키게 마련이다.

이는 비단 도서관 사회에서 뿐 아니라 奉仕를 모토로 삼고 있는 모든 직업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에서 오는 빈곤한 단면으로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하지만 봉사란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 紙付와 상관없이 친절하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진의(眞義)일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처럼 봉사의 가능성은 결국 그 사람의 생활보장이나 안정된 기본적 생활권을 유지 시켜 줄 수 있을 때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 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급부란 언제나 개개인이 원하는 대로 원

만히 해결되는 것만도 아닌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社會 現實임을 알 것이다. 그렇다면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살린다면 사서는 사서로서의 철학과 좌표를 재인식하고 봉사의 사명감으로서 일을 급부와 너무 관련시키지 말 것이며 일이란 신성한 인간의 권리라 생각하고 보람으로 일의 즐거움을 느끼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즉 假飾되지 않는 참다운 봉사에 임해야 될 것이다. 곧 도서관인들은 거의가 도서관이 직장이 될 것 이므로 도서관을 자기 몸 같이 아끼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 운영과 육성 등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본분을 다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점차 도서관계의 발전은 必然的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신념과 각오를 가지고 사서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확립할 때 도서관인의 참신한 모습이 浮刻될 것이며 또한 外部로 부터의 認識도 새로와 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람직한 司書像이 사서들 모두에게 새겨지는 날엔 부수적인 問題點들도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믿는 것이다.

3. 結

圖書館의 오늘은 아직도 학문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관리적으로나 여러 부문에 걸쳐 시정되어야 할 부조리와 문젯점을 숱하게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恒時 문젯점만을 들추고 나설 것이 아니라 그 뒷수습이나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을 풀어 놓아야 할 것으로 본다. 즉 명명을 밝히는 진단이 내려지면 이내 수술을 하든 치료를 하든 끝을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서들의 비장한 각오와 강력한 단결합심에 의한 개개인이 자세확립이 절실이 요청된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앞으로 계속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작성해야 될 것이다.

전 도서관인은 무사안일주의의 思考方式에서 하루 속히 과감히 탈피하여 봉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며 새로운 각오와 정신적 자세 확립을 함으로써 과거의 사서가 아닌 오늘의 사서도 아닌 미래에 훌륭한 사서로서 발돋움해야 되겠다. 끝으로 모든 도서관이 발전되고 나아가서 모든 도서관인이 명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구나 막론하고渾身의 努力を 해야 될 것이다.

● 圖書館發展에 대한 提案을 바랍니다.

本協會는 本會運營과 圖書館發展을 위한 여러 가지 意見이나 提案을 바라고 있습니다.
提出된 意見이나 提案은 도협월보에 掲載하여 널리 알림은 물론 이를 研究하여 積極反映하게 될 것입니다.